

강진군, 서울시관광협회 회원사 초청 팸투어

수도권 여행업계 대표 약 20여 명 초청 진행 500만 관광객 유치 위한 관광 상품 구성 견인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진군수 강진원)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강진군과 관광활성화 협약을 맺은 서울시관광협회 회원사 대상 수도권 여행업계 대표 약 20여 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달 12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된 '2023 서울 지역 강진군 관광객 유치 사업설명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강진 여행상품 구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강진의 대표 관광지인 강진다원, 고려청자박물관, 가우도, 영광생가, 사의재 등을 견학했으며, '불금불과' 등 군의 다양한 관광사업에 대해 안내받고, 상품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관광협회 종합여행업 위원장 김용진(㈜코엔씨 대표)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서 백운동원림을 비롯한 강진의 매력적인 관광지와 '불금불과'와 같은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며 "우리 서울시관광협회와 서울·경기 여행사 대표단은 팸투어를 통해 소개받은 정보를 반영한 직접적인 강진 여행상품을 구성해, 강진군의 500만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석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은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거점으로,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공격적



인 마케팅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우리 재단은 우리 군에서 목표한 500만 관광객 유치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다양한 관광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해양치유 프로그램 진행...매주 토·일요일

완도군은 전라남도 체육대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전남 정월 페스티벌 등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이벤트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해양기후치유센터에서 이뤄지며, 5월 중 매주 토·일요일에 진행된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해양문화치유센터 미디어 아트 감상,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인 노르딕워킹 체험 등이 진행된다.

군은 체험에 참가하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머드팩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군민을 제외한 관외 방문객에게는 해양치유센터 1층 일반 프로그램 이용 할인권(50%)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9월 완도해양치유센터 그랜드 오픈 전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기획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해양치유센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주요 행사 시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완도읍에서 신지 해양기후치유센터까지 순환 버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완도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 방문해서 행사를 즐기고, 해양치유 체험을 통해 치유관광을 즐겨보시길 추천한다"면서 "6월부터 진행되는 완도해양치유센터 시범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진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12,066호의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지난해 대비 -2.66% 소폭 하락했다.

소폭 하락 요인은 토지가격의 하락 등 주택 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세 반영으로 분석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중 최고가는 진도읍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4억5,200만원이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사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진도군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진도=조성용 기자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에서 역사 체험하세요

가족단위 관광객 체험프로그램 운영, 울돌목 뜰채송어잡이도 볼거리

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토, 일, 공휴일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페이스 페인팅, 이순신 장군 칼만들기, 토끼, 강아지 등 동물모양 풍선만들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뇌하는 이순신 탁본만들기 등 3종의 유료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울돌목에서는 우수영의 명물 뜰채 송어잡이가 시작돼 색다른 볼거리가 되고 있다. 울돌목을 거슬러 온 송어를 뜰채를 이용해 잡는 송어잡이로, 진도대교 아래 갯바위

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우수영관광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아슬아슬한 바다위를 걷는 스카이워크(무료)와 울돌목 해상 가로지르는 명량해상케이블카(유료)가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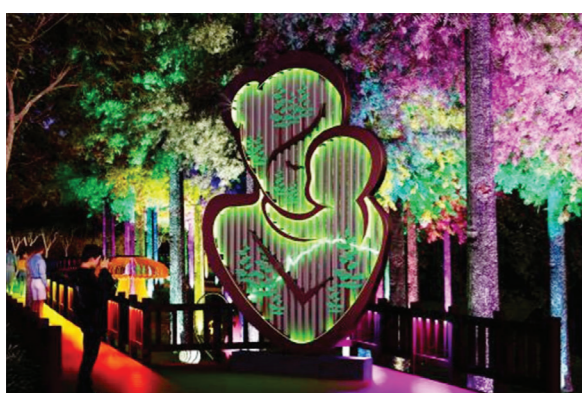
해남 우수영관광지는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명량대첩 승전지로, 해남과 진도 사이 약 1km 해협에 울돌목이 위치해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에서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국내 최고 야간경관 명소 본격화



장흥군이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의 야간경

장흥의 상징인 머느리바위를 어머니로 새롭게 구현

관 새단장에 나섰다.

군은 6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편백숲 우드랜드가 관광 콘텐츠 보강을 위해 야간경관 콘텐츠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5월 3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자문위원, 부서 관계공무원, 용역사가 참석하여 야간경관 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장흥의 상징인 머느리바위를 어머니로 새롭게 구현해 우드랜드 입구에서 억울산 정상까지 전체적인 야간경관 조성 목표로 한 마스터플랜을 보고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장소별 스토리텔링을 연계하여 기본구상, 발전 방향과 비전 및 전략 등도 논의했다.

우드랜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저해 요소 및 빛 공해 최소화, 에너지절감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군은 편백숲 우드랜드를 '어머니 웃기에 스며들다' 테마로 차별화하여 이목을 끌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계획을 밝혔다.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해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흥의 대표적인 야간경관 명소가 되도록 향후 최종보고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야간경관과 장흥군 슬로시티를 접목하여 우드랜드 가치 보존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접점을 찾겠다"며,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